https://doi.org/10.5392/JKCA.2017.17.01.567

문화적 양극화, 탈북자 토크쇼, 정체성 혼란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모란봉 클럽>에 대한 담화 및 담론 분석-

North Korean Defectors, Talk Shows, Dialogue and Discourses
-A Dialogue and Discourse Analysis on TV Talk Sho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강민경*, 백선기**, 남시호***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Univ. of North Florida***

Min-Kyung Kang(klk707@daum.net)*, Seon-Gi Baek(baek99@skku.edu)**,
Siho Nam(snam@unf.edu)***

요약

본 연구는 탈북자 TV 토크쇼가 어떠한 포맷과 의미구조를 근간으로 하는지 분석했다.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TV조선의 <모란봉 클럽>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탈북자들의 남·북에 대한 사고와 그에 따른 담론 생성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무거운 주제들과 체제에 대한 주제들을 근간으로 '북한에 대한 긍정형'과 '남한에 대한 판타지형' 담화가 주로 전개되었고,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모란봉 클럽>은 가볍고 선정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남한에 대한 비판형'과 '남한에 대한 불만형' 담화 유형이 주를 이루며, 남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판적 시각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수렴적 담론 구조를 근간으로 남한 우월 이데올로기가 두드러진 반면에, <모란봉 클럽>은 대립적인 담론 구조를 통해 남한 절망 이데올로기를 생성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탈북자들의 혼재된 정체성이 드러났고, 자신들을 반-북한적인 존재로 자임하고 있음과 동시에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서 불만 및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 중심어 : | 탈북자 | Talk Show | 담화 | 담론분석 |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모란봉 클럽>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ormats and structure of meanings for the TV talk sho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authors selected <Now on my way to meet you> of Channel A and <Moran Hill Club> of TV Chosun as research subjects. As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ormer dealt with heavy issues about North Korea, expressed positive perspectives on North Korea and fantasic expectations about South Korea, and produced superior dicourse of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one dealt with light and sensational items about North Korea, employed dialogues about critics and disappointments on South Korea, and produced problematic discourse about South Korea. The former produced a kind of converged discourse structure to create superior ideology of South Korea, while the latter produced a kind of dichotomous discourse structure to create frustrating ideology. In short, through this study, it turned ou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uffered from their confused identities, unclear self identities, and minority position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 keyword : | North Korean Defector | Talk Show | Discourse | <Now on my way to meet you> | <Moran Hill Club> |

*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NRF- 2011- 330- B0020)
* 본 연구는 백선기의 <사회양극화와 문화양극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강민경의 석사논문의 일부로 활용된 바 있다.

접수일자 : 2016년 09월 28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백선기, e-mail : baek99@skku.edu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매체의 다양화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방송은 직접 겪기 어려운 사건이나 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데[1], 이러한 매체적 특성은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를 재현하는 강력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체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이것은 북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방송과 같은 매개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2].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80년대 말부터 국내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지상파 북한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 전망대>가 있으며 각각 1989년과 2001년에 정규 편성되어 지금까지 주간 단위로 방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EBS와 KTV에서도 본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시사 · 교양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흥미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연이은 종영을 맞았다. 그로 인해 북한 관련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서로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송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양이 매우 부족하였다[3].

2011년 말 국내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은 포맷의 변화를 통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2011년 12월에 방영된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1]가 탈북자 재현 프로그램의 포문을 열었고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채널A <잘 살아보세>, MBN <남심북심 한솥밥>, TV조선 <모란봉 클럽>[2]이 차례로 제작·방영되었다.

특히 탈북자 토크쇼의 시초로 주목받는 채널A의 <이만갑>은 첫 방영 이후 미국 <LA 타임스>, 프랑스 <리베라시옹(libéiration)> 그리고 영국 BBC 등에서 특집 아이템으로 다뤄졌고, 국내 '클린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면서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았다[2]. 이러한 집단 토크쇼 포맷의 탈북자 재현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TV조선에서 <모란봉>을 제작·방영하면서 가열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가 '토크쇼'란 장르에 주목하는 이유는 토크쇼가 개인의 기억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각 토크쇼만의 특정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2],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과 발언에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포맷의 탈북자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방영 중에 있는 두 탈북자 토크쇼 프로그램 <이만갑>과 <모란봉>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떠한 담론들을 생성하며, 그러한 담론들에 내재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며, 이들 담론과 이데올로기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Ⅱ. 기존문헌고찰 및 이론적 논의

1. 한국 사회의 탈북자 현황

남북분단 이후 초기 탈북자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이었다. 박병도[4]는 197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비되는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으로 인해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부각되면서 탈북을 감행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지속은 탈북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탈북자 수는 현재 2만 8천여 명에 달한다[5].

탈북자들에 대한 검증 과정은 국정원에서 시행되고 이후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사무소에서 12주간 정서안정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 부여 등을 목표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2011년 49.7%에서 2015년 5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생활 상황이 통계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1) 이후 <이만갑>으로 표기
2) 이후 <모란봉>으로 표기

그러나 탈북자들의 사회 진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탈북자들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32.6%), 서비스업(23.1%),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12.2%), 사무직(8.3%) 등 저소득 직업군이나 비정규직에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북자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223만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탈북자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수준은 만족스럽지 않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15세 이상의 탈북자 1만2천777명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남한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수준향상기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탈북자비율은 2012년에 75.4%였던 반면에 2013년에는 68.5%로 6.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서의 생활수준이 어떠했는가에 따른 질문의 응답으로 탈북자들은 상류층 12.7%, 중간층 36.6%, 하류층 50.5%라고 답한 반면 같은 조사에서 탈북자들은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류층 3.3%, 중간층 23.1%, 하류층 73.2%라고 응답했다.

북한에서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탈북자들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6].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저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현상[7]은 탈북자들이 처하는 빈곤의 문제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불평등한 처우, 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 직장에서의 직무상 불이익, 선입견 등 소득과 연결된 사회 환경적 조건하에서의 배제의 결과이며, 사회적 배제는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한다.

2. 탈북자의 정체성 혼재

탈북자들은 정착 후에 일상에서 분단의 경계들을 맞닥뜨린다[8].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던 초기에는 '영웅'으로 묘사하는 등 그들을 우호적으로 대접했지만, 최근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객체로 취급되기 시작했다[7].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정의 대상이면서 민족의 갈등을 유발하는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는 이중적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사회와 국민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은 다소 냉소적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괘를 함께 하는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은 '타자', '타문화'로 인식해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 결과[9],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리', '형제', '이웃' 등에서 '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10].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됐다. 탈북자들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외교적으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존재라고 여기거나 북한 주민이든 탈북자든 똑같은 타국인일 뿐이라는 시각이 만연하고 있다[11]. 오히려 다양한 이주자 그룹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타자'로 인식되고 있고[8], 다문화 이주자들보다 관심이 덜하고 있다.

결혼 상대자나 사업 동업자와 같은 친근 관계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12], '이방인'이나 '무임 승차자', '하층민', '2등 국민'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13][14].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남북의 지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 문화적 경계 사이에서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통일부와 탈북자 지원재단에 따르면[5](2013) 탈북자 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탈북자 응답자 4 명 중 1 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탈북자들은 '남'과 '북'이라는 이원성이 내재된 존재인 만큼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북한을 철저히 부정해야 했고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결국 타인의 시선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8]. 이희영[15]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법적인 소속을 넘어 '헌신', '동화', '우월', '비판'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정투쟁'[3]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인정투쟁'이란 악셀 호네트(Honneth)가 제시한 개념으로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

3) 악셀 호네트(Honneth)는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간의 존재는 타인의 인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며, 인정투쟁은 소통이 상대방을 향한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6].

소수 집단들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 타인들과의 접촉과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TV 토크쇼에서의 탈북자 등장과 현황

2011년에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면서 탈북자 재현 프로그램은 새로운 제작 포맷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의 예능화'를 표방한 탈북자 재현 프로그램은 탈북자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사 · 교양이라는 장르적 한계을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최근 TV 토크쇼에 탈북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포맷이 종합편성채널에서 연이어 편성되면서 탈북자들의 사적 담화에 기인해 북한 사회 및 생활상에 관련한 담론들이 생성되는 추세다[2]. 또한 <이만갑>에서는 여성 탈북자들의 미모가 부각되며 '탈북 미녀로 지칭되는 등 탈북자 재현의 변화가 드러났다[17].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TV 토크쇼라는 예능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이 쾌락적이고 비현실적인 도피적 내용을 제공하여, 수용자들을 탈정치화 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창출한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저급한 가치와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내적 통합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18].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앞서 언급한 탈북자들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탈북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완전한 동화를 요구받지만, 통합될 수 없는 타자로 존재하고 남북한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19].

탈북자들은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와 정치적 투사를 오간다.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생존자'로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말을 하거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20]. 탈북 여성들에게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남북한 전망 등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대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남한 사회에서 특정한 내용의 말하기를 요구받고, 그것에 맞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21].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개인의 발언은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20]. 이를 감안할 때 공적 공간에서 북한에서의 경험과 체제를 일관되게 부정·비판하는 것은 남한 국민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탈북'을 '반북', '친남'으로 해석하는 남한사회에서, 비교적 손쉽게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의 주류 규범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Ⅲ. 연구문제

이들 토크 쇼 프로그램들이 과연 탈북자들의 과거 북한에서의 고단한 생활과 힘겨운 남한 사회의 정착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그들의 담화가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窓)'이 될지 북한을 겨누는 '창(槍)'으로 작용 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1] 탈북자 TV 토크쇼 <이만갑>과 <모란봉>의 포맷과 콘텐츠 구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이 두 프로그램의 주요 담화유형과 담론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Ⅳ.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만갑>과 <모란봉>은 각각 2011년 12월 4일과 2015년 9월 12일에 첫 방송이 시작되어 프로그램 간의 방영기간의 차이가 있었기에, 2015년 1월 첫 주부터 2016년 1월 넷째 주까지의 방영분을 분석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만갑> 57회 방영분과 <모란봉> 20회 방영분을 토대로 같은 장르를 표방하는 두 프로그램의 포맷구성, 담화내용, 담론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영상화면 분석

영상 화면에 대한 분석은 바르트(Barthes)의 사진 분석방법을 차용하면서 발전시킨 백선기의 영상이미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22]. 영상 화면을 사진의 단면으로 간주하고, 영상화면 각각을 근본의 의미소인 '숏(shot'으로 구분하고, '숏'의 묶음은 하나의 단락으로 연계되며, 단락들은 또 하나의 국면을 이루어짐을 근간으로 하였다. 숏은 가장 최소한의 의미소이며, 의미소들의 묶음이 보다 커다란 단계의 의미 단락으로 연계되고, 단락들은 또다른 의미국면으로 확대되면서 연계된다. 의미생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원적인 의미에서 단락적 의미로 연계되고, 나중에는 국면적 의미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호가 심층적인 의미소에서, 표층단계인 의미 표현체를 거쳐, 표출단계인 일반 언어 표현들로 확대되는 단계를 유추한 것이다[22].

영상화면에 대한 심화된 분석방법은 바르트의 외시 및 함축의 분석방법이 적용되었다. 바르트는 기호학적인 탐색을 사회적으로 내면화하거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으로 심화시켰다. 그는 이렇게 하기 위해 '신화'라는 개념을 동원하였는데 이는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신화의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신화는 특정한 기호가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연계되고, 이러한 연계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됨을 보여준다[22].

2.2 담화 분석

담화분석의 목적은 인간의 대화를 분석해서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적 상호작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찾아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는 데 있다[23]. 담화분석은 인간 상호작용의 구조의 기술과 분석을 목표로 삼는다. 이 목적을 위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관한 시각적, 청각적 기록은 정밀한 분석을 하게하고, 이야기의 구조와 '비언어적' 행동을 상세히 산출해 낸다. 이 담화분석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삭스(Sacks)와 쉐글로프(Schegloff), 제퍼슨(Jefferson)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50년대 초 베일(Bale)의 사회과학적 구조의 프레임에서 비롯되었다[24]. 이에 앞서 고프만(Goffman)은 '일상생활을 넘어서 그 이면에 내재된 인간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며 담화의 정서적, 사교적 커뮤니케이션에 포착하는 담화분석을 시도했다[24].

바흐친(Bakhtin)은 언어반응은 생체에 의한 고유한 사회적 발현이고, 언어반응은 개인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 전체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25]. 언어행위는 모든 사회적 상황 전체의 산물이고, 사회·경제적 법칙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와 사회의 여러 현상들과 연속된 일종의 연결체인 것이다[25][26].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백선기가 제시한 'TV 토크쇼에서 드러나는 탈북자들의 담화 유형'[4] 즉, 북한 비난형, 북한 안쓰러움형, 북한 향수형, 북한 미련형, 북한 긍정형, 남한 기대형, 남한 실망형, 남한 비판형, 남한 불만형, 남한 판타지형, 남북한 긍정형, 남북한 실망형, 남북한 기대형, 남북한 무기력형, 남북한 무감각형 등 총 15가지 가설적 유형을 차용해 확인하고자 했다[27-29].

2.3 대립적 담화에 대한 계열 분석

계열체 분석방법은 미디어 텍스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기호학적 분석 방법이다. 계열체가 성립되는 단위들은 속성에 의해 공통점을 지니고 유사성에 의해 범주가 형성된다. 반면 유사성의 범주 내에 속해있는 단위들은 그 안의 다른 항목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계열체 분석은 앞서 언급한 유사성보다 내용적 측면의 이항대립이 존재해야 분석의 도출이 용이하다. 한 기호는 계열체 안에서 상대 기호와 기표와 기의 측면에서 상호 대립함으로써 의미를 완성한다[30].

계열체적 관계는 문장에 나타는 특정 기호들과 대립되어 나타나는 숨겨진 기호들의 관계를 의미한다[31]. 기의나 기표의 유사성이나 대립 등에서 생선된 잠재된 의미들과 패턴을 밝혀낸다. 김경용[32]은 이항대립쌍은 텍스트에 묻힌 잠재적 구조이며, 이는 텍스트의 담론적 줄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을 초과하는 궁극적인 의미들을 내포한다고 한다.

4) 본 담화유형은 백선기의 토크쇼 연구들(2002, 2004, 2009)을 근간으로 제시한 유형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어떠한 담화 유형을 더욱 선호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4 담론 분석

담론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푸코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담론은 사회의 모든 영역들의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26]. 담론분석은 이미 생산된 의미에 대한 해석이고, 해석된 영역에 대한 재해석이다. 백선기[33]는 “담론이란 발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단순한 기호 체계라기보다는 이러한 기호 체계에 사회적 맥락이라는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기호의 교환 행위를 하는 주체들의 의식적 사고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의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담론이란 발화자들의 단순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다[31].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호의 모임인 담론은 형태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담론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황과 더불어 끊임없이 그 맥락적 흐름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백선기[34]의 담론구조분석(DSA)를 차용하였다. 각 의제에 따른 하위 담론(DSA 1, DSA 2, DSA 3)들이 구성되고, 이들 하위 담론들은 다시 거대 담론(Grand DSA)으로 수렴된다. 담론구조분석은 [그림 1]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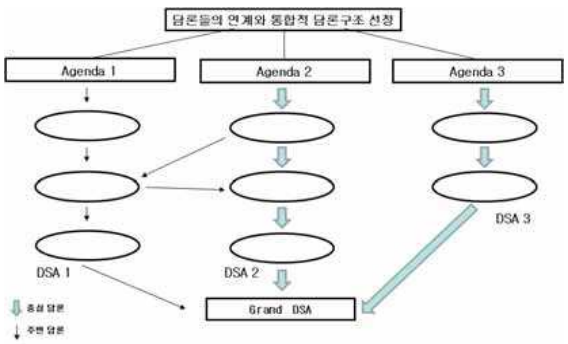


그림 1. 담론구조 분석방법(DSA)[34]

2.5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및 중심 내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기호학 분석방법 중 영상화면 분석을 적용해 포맷과 콘텐츠 특히 외형 포맷과 색채 그리고 기본 구성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어 [연구문제 2]에서 밝혔듯 두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탈북자들의 담화 및 담론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계열 분석으로 대립적 담화의 주장을 파악하고, 담화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의 담화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담론분석을 시행해 <이만갑>과 <모란봉>에서 나타나는 담론 주요 쟁점의 차이에 내포된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본 연구의 단계적 분석방법 프레임

연구문제	분석방법	중심내용
연구문제 1	영상화면 분석	외형 포맷 분석 색채 분석 의미 구성 분석
연구문제 2	담화 분석	담화 유형 분석
	계열 분석	대립적 담화 분석
	담론 분석	담론 구조 분석

V. 연구결과

1. 포맷 구성과 의미 분석

1.1 외형 포맷 분석

(1) 스튜디오 세트와 공간 의미

① <이만갑>의 스튜디오 세트와 공간적 의미

본 연구 단계에서는 <이만갑>의 구조적 특징이 가장 부각된 164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가. 스튜디오 전경

<이만갑>의 스튜디오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 출연자는 여성 탈북자 10~12명, 남성 탈북자 2명, 남성MC 1명, 여성MC 1명, 남성 패널 4명인데, 특징은 탈북자들이 4단의 층계에 나눠서 앉아있는 모습이다. 여성 탈북자들은 4단의 층에 고루 배치가 되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남성 탈북자들은 4층 우측에 배치된다. 이러한 <이만갑>의 스튜디오 영상의 조형도를 ①, ②, ③, ④, ⑤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표 2. <이만갑> 스튜디오 전경과 조형

구분	화면
전경 및 조형도	

나. 여성 탈북자

조형도 [표 1]-①에 나타나는 여성 탈북자들은 이름과 고향이 기입된 이름표를 달고 층계에 나란히 앉아있어 전시된 느낌을 주며 시선을 집중시키는 1차(외시)의미를 드러낸다.

이에 대한 2차(함축) 의미는 탈북자라는 특성과 본질보다 외모를 근간으로 대상화되고 객체화된다. 여성 탈북자들이 개인의 성향에 맞는 복식으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복식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탈북자의 각선미와 관능미를 부각시킨다. 우측에 위치한 남성 탈북자들과 성적으로 대립되는 구도를 형성한다. 특히 가장 아랫단 중앙에 위치하는 여성 탈북자 3명은 매회 위차가 거의 고정적인데 이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만갑의 센터'라고 불리는 등[35][5] 탈북자라는 특성과 별도로 여성 탈북자의 외양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이는 탈북자의 이질성 극복이라는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달리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크게 주목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다. 남성 탈북자

조형도 [표 1]-②에 나타난 남성 탈북자들은 제일 마지막 층계인 4층 우측[6]에 주로 배치된다. 이들의 영상에 나타나는 1차(외시) 의미는 토크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배치되어 여성 탈북자들의 대화를 내려다보는 억압적 시선이다. 남성 탈북자들은 과거 북한에서의 직업 또는 현재 한국에서의 직업이 강조되며, 전문가 집단으로 기능한다. 이에 대한 2차(함축) 의미는 4단으로 구성된 층계가 출연자들의 위계를 시사하는 것이며, 대부분 담화의 마무리가 남성 탈북자들의 언급 및 증언으로 귀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라. 사회자

조형도 [표 1]-③은 사회자를 나타내며 <이만갑>의 사회자는 남성과 여성 각각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형도에 나타난 사회자의 1차(외시) 의미는 중앙에서 전체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권력자로 기능한다. 사회자 두 명 대 다수의 출연자라는 포맷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야기, 사변적인 담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 탈북자들이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여성 사회자가 출연함으로써 여성 탈북자들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내는 구조다.

마. 남성패널

조형도 [표 1]-④에 나타난 남성패널들의 1차(외시) 의미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대립적 관계와 남한[7] 대 북한의 문화적 대비 관계를 의미한다. 연예인 또는 유명인으로 구성되는 남성패널들은 다양한 북한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기보다 가벼운 담화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성패널이 드러내는 2차(함축) 의미는 젠더와 문화적 측면이 중첩돼 중층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남성패널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의 경험담을 전할 때 남한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로 변질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바. 중앙무대

조형도 [표 1]-⑤는 스튜디오의 중앙에 위치한 원형무대[36][8]로 이것의 1차(외시) 의미는 출연자와 관객과

5) <이만갑>의 제작자들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탈북자들의 출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로 외모와 말재주를 꼽았으며 성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대중의 관심에 부합하는 '방송이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5].

6) <이만갑>의 작가 전화 인터뷰(2016.3.14)에 따르면, 남성 탈북자의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 섭외가 이뤄졌으며, 여성 탈북자에 비해 체구가 커 후위에 배치한다고 한다.

7)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남한'이라는 어휘가 '북한'과 대립적인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그대로 사용한다.

8) 원형무대는 연기자들이 가운데 서게 되므로 관객과의 거리가 좁아지고 원형으로 둘러 앉게 되어 공동체라는 의식이 생성된다[36].

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중앙무대는 주로 처음 출연하는 탈북자들이 자신을 소개하거나 특기를 보여줄 때 사용된다. 특정 회차의 경우에는 독자적 코너가 진행될 때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콩트를 이어가기도 한다. 중앙무대의 2차(함축) 의미는 남북, 남녀라는 국가와 성별을 막론하는 화합의 장을 의미하며, 대립 속에서 접촉을 통해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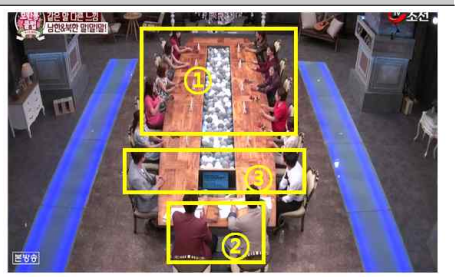
② <모란봉>의 스튜디오 세트와 공간 의미

본 연구 단계에서는 <모란봉>의 구조적 특징이 가장 부각된 5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가. 스튜디오 전경

<모란봉>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공간 배치는 [표 2]와 같이 직사각형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출연자들이 둘러앉고, 남성 사회자 2명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양 옆으로 남성 패널 2명과 여성 탈북자 10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된다. 이러한 자리 배치는 출연자들 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토크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다. <모란봉>의 스튜디오 영상의 조형도를 ①, ②, ③으로 나눠 분석했다.

표 3. <모란봉> 스튜디오 전경과 조형

구분	화면
전경 및 조형도	

나. 여성 탈북자

조형도 [표 2]-①에 나타나는 여성 탈북자들은 매 회당 10명이 출연하며 테이블 양 옆으로 5명씩 배치된다. 이들의 1차(외시) 의미는 편평한 테이블에 마주보고 있음으로 모든 출연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는 평등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성 사회자들로부터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여성 탈북자 2명이 항상 일정하고, 이러한 자리배치는 그들의 인지도와 외모[9]가 근간이 된다.

이에 대한 2차(함축) 의미는 여성의 성 평등화와 객체화·대상화 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혼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들과의 배치에 있어서 상하의 개념으로 구분되지 않아 여성의 위치가 다소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성 탈북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탈북자'라는 신분의 특성보다 '여성'으로서의 외적 요소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 사회자

조형도 [표 2]-②는 남성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자로 이들의 1차(외시) 의미는 사교클럽을 표방한 프로그램 포맷에서 호스트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 탈북자들의 담화를 이끌어 내는 중재자이자 전체 상황을 통제하는 권력자로 기능한다. 이들의 2차(함축) 의미는 심층 대화를 지향하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제 속에서 남성적 시각이 부각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라. 남성패널

매회 등장하는 남성패널 두 명의 배치는 조형도 [표 2]-③과 같다. 각각 사회자의 양 옆에 배치되는 남성패널의 직업은 주로 연예인 및 유명인이며, 이들의 1차(외시) 의미는 북한 문화에 대비하여 남한 문화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성 패널의 2차(함축) 의미는 젠더와 문화적 코드의 이중성으로 프로그램의 취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남한과 북한과의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기제로 작용하지만, '회원'이 아닌 '게스트'라는 명목으로 사회자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면서 '남남북녀'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9)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와 가까이 배치된다는 것은 잦은 발화 기회를 의미한다. <모란봉>에서 사회자 및 남성 패널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는 여성 탈북자 김은아와 박수애는 본 프로그램 출연에 앞서 TV조선 <남남북녀>에 출연해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치는 여성 탈북자의 인기를 중심으로 시청자의 주목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다.

1.2 색채 분석[10]

① <이만갑>의 색채 분석

가. 자주색

<이만갑>은 세트와 로고, 자막 등에 주로 자주색을 사용하고 있다. 자주색은 도회적, 화려함, 섹시 등[37][38][11]을 의미하기에, 1차적 의미는 여성스러움을 의미하고, 심층 의미로는 여성 탈북자들의 섹슈얼리티를 의미한다.

나. 초록색과 파란색

여성 탈북자들의 자주색에 대비하여 남성 탈북자와 남성패널은 각각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등장한다. 초록색은 지성, 희망, 휴식 등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이상, 진리, 냉정 등을 의미하는 색으로 활용된다. 초록색과 파란색을 자주색과 대비시키는 것은 여성의 감성과 여성성 즉, 섹슈얼리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다. 노란색

노란색은 사회자들의 이미지와 프로그램 로고의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리본[12]에 나타난다. 노란색은 빛에 가장 가까운 색으로 발전, 환희, 사교성 등을 의미하며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크다. 오프닝과 클로징을 담당하는 사회자들을 노란색으로 표출함으로서 남북의 대치국면을 보다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란색 리본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분단 상황에 놓인 남북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장치로 작용한다.

② <모란봉>의 색채 분석

가. 검은색

<모란봉> 세트는 검은색[13]의 벽을 중심으로 어두운 파란색과 갈색 등이 어우러져 있다. 검은색은 밤, 신비, 슬픔, 어둠 등을 상징하며 사람의 마음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초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검은색의 연출은 탈북자들의 사적 이야기를 몰래 털어놓는다는 취지가 그들의 불안한 심리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빨간색

빨간색은 프로그램의 로고부터 오프닝 영상, 여성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자막과 모란꽃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빨간색은 기쁨, 정열, 강렬, 젊음 등을 의미하며 <모란봉>에서의 빨간색은 1차적으로 강렬함과 정열을 의미하고, 심층 의미로는 여성 탈북자들의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다. 초록색

<모란봉>의 사회자 이미지는 초록색으로 구성된다. 사회자 후방의 초록색 문과 자막 등에 초록색이 사용되는데 중재, 희망, 지성, 명랑 등을 의미하는 초록색은 여성 탈북자들의 빨간색 컨셉과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초록색 사용은 사회자를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중재하는 의사소통의 기제로 인식하게 한다. 사회자가 토크에서 권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젠더적 성격을 크게 대비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2. 주제 분석

2.1 <이만갑>과 <모란봉>의 주제 분석

두 프로그램의 담화와 담론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이 두 프로그램은 주제의 성격과 유형의 차이가 크게 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만갑>은 경성 주제, 정서적 주제, 제도적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 및 정책에 대해 풍자와 비하의 시각을 제시하고, 남북의 생활 및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한 문화에 대한 주제에서 긍정성과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드러나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모란봉>은 연성 주제, 선정적 주제, 신변잡기

10) 색채에 대한 의미는 학자들에 따라 아주 다양함으로, 문은배의 연구(2002, 2005)를 근거로 하였다.

11) 자주색은 도회적, 화려함, 사치, 섹시, 궁중, 왕관, 권력, 허영 등을 의미한다[37].

12) <이만갑>의 작가 전화인터뷰(2016.3.14)에서 <이만갑>의 노란색 리본은 '기다림'을 상징한다고 한다.

13) <모란봉>의 작가 전화인터뷰(2016.3.14)에서 <모란봉>의 검은색 위주의 세트구성은 사교클럽이라는 특성에 기인해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적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감정적인 호소와 전달에 중점을 두며, 북한 정권과 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북한 생활을 가십화하며 남한 문화에 대해 비판하게 기능한다. 남·북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남·북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는 것은 이들 탈북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표 4. <이만갑>과 <모란봉>의 주제 비교

<이만갑> 주요 키워드	주제 유형	<모란봉> 주요 키워드
– 지도자 관상 – 지도자 질병 – 지도자 별명	북한 정권	– 체제 선전 – 지도자 정체성
– 대외적 정책 – 대남 정책 및 도발	북한 정책	– 대내적 정책
– 생활 규정 – 의료행위 – 음식	북한 생활	– 연애 – 범죄 – 성형수술 – 부부싸움
– 남한 문화 – 세계화 – 자본주의	북한 신(新)문화	– 성매매 – 외래문화상업
– 지리 적응 – 사업 성공기 – 의복 양식	남한 문화	– 탈북자 정체성 – 화장실 – 클럽 – 나이트 부킹 – 속옷매장
– 가족 – 이산가족 – 실향민 – 고향	탈북 및 분단	– 탈북 이유 – 탈북 경험
– 군사비용 – 경제적 이득 – 교역 중심지 – 대북방송	남북 통일	– 부동산 – 사업

3. 담화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제가 많는 회차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만갑>의 164회, 182회, 185회, 208회, 209회, 213회와 <모란봉>의 2회, 8회, 9회, 10회, 14회, 19회를 분석했다.

3.1 '북한 비난형' 담화 비교

<이만갑>과 <모란봉>에서 드러난 가장 잦은 담화유형은 '북한 비난형'이며, 담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북한의 경제난, 비인권적 처벌 방식, 비정상적 정책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만갑>에서는 북한 쇠퇴의 원인이 부패한 정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에 반해, <모란봉>에서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서 비롯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주로 다루고 있다.

3.2 '북한 안쓰러움형' 담화 비교

'북한 안쓰러움형' 담화에서는 <이만갑>의 경우,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한 힘듦이 남한의 풍요로움을 동경하게 하고, 북한의 지나친 의복 검열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빈해 <모란봉>에서는 한 여성 탈북자의 아버지가 공개 처형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슬픔과 안쓰러움을 부각시켰다. 이어 주민들의 마약 소지 사례, 중국에서 급증하는 북한인 인신매매 등 북한 주민들의 비극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3.3 '북한 긍정형' 담화 비교

<이만갑>의 '북한 긍정형' 담화에서는 자본주의 문화를 다루는 TV 채널의 등장, 최신 유흥 문화의 유행, 컴퓨터 보급의 활성화, 해외 명품 구매 유행 등의 사례가 주로 소개되었다. 북한의 남한 자본주의적 경향을 추종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모란봉>에서는 북한의 자연과 주민들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묘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3.4 '북한 향수형' 담화 비교

<이만갑>과 <모란봉>에서 제시되는 '북한 향수형' 담화를 비교한 결과 공통으로 나타나는 유사점을 추출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어릴적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언급했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1회나 2회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취급되었다.

3.5 '남한 기대형' 담화 비교

'남한 기대형'에서 부각되는 특징은 <이만갑>의 경우, 남한의 풍요로운 생활과 이산가족 상봉의 행복함에 대한 담화를 이어가며 남한 체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통일에 따른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 <모란봉>에서는 남한의 발전된 교통으로 인한 이동의 자유와 여성 인권에 대한 제고를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한다.

3.6 '남한 비판형' 담화 비교

두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남한 비판형' 담화에서는 문화적 측면에 대한 비판과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두루 제시된다. <이만갑>의 경우 남한의 지나친 노출 패션과 과도한 성형 문화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모란봉>에서는 경제관념의 부재로 인한 허영적 사치 문화와 황금만능주의에 매몰된 극단적 범죄 양상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실망감과 비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 간 차이점을 유목과 횟수를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란봉>에서 남한에 대한 비판적 담화가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7 '남한 불만형' 담화 비교

'남한 불만형'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만갑>에서는 북한에 비해 사소한 남한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이질감을 표현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법적 규제가 남한의 풍요로운 생활 및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에 비해 <모란봉>에서는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탈북자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애환을 언급한다. 또한 남한에서의 세금 납세 의무에 대한 부담감과 북한에서의 경력 및 자격증이 남한에서 인정되지 않아 파생되는 탈북자들의 경력 단절이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제기한다.

3.8 '남한 판타지형' 담화 비교

두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남한 판타지형'의 담화는 '남한 문화 향유로 인한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만갑>의 담화 내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판타지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유형의 담화 횟수를 비교함에 있어서도 <모란봉> 에서는 2차례만 언급되었던 것과 달리 <이만갑>에서는 13차례나 언급되어 '남한 판타지형'의 담화가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만갑>과 <모란봉>의 탈북자들의 담화는 백선기의 '탈북자 토크쇼 담화 유형 15가지' 가운데 '북한 비난형', '북한 안쓰러움형', '북한 긍정형', '북한 향수형', '남한 기대형', '남한 비판형', '남한 불만형', '남한 판타지형'을 비롯해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가운데 '북한 비난형', '북한 안쓰러움형' 유형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두 프로그램의 담화유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만갑>에서는 '북한 긍정형'과 '남한 판타지형'을 중심으로 북한 위주의 담화가 드러나고 남·북 비교를 통해 남한의 우월성이 부각된다. 이에 반해 <모란봉>은 '남한 비판형'과 '남한 불만형'을 바탕으로 남한에 대한 비판을 고취하고 남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한다.

따라서 담화유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두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북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북한의 현실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만갑>에서는 북한의 긍정적 측면과 남한에 대한 동경을 동시에 언급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남한의 우월성을 부각시킨다. 반면<모란봉>에서는 남한을 보다 이성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남한의 부족한 점들을 적시하고 있다.

4. 대립적 담화에 대한 계열 분석

4.1 <이만갑> 담화에서의 대립적 주장 : 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4.1.1 북한 미인 vs 남한 미인

북한 미인	구분	남한 미인
큰 얼굴 둥근 얼굴	얼굴	작은 얼굴 갸름한 얼굴
살집 있는 몸매 통통하고 알이 있는 다리 굵은 허리 크지 않은 가슴	체형	날씬한 몸매 늘씬한 다리 얇은 허리 큰 가슴
무허가 성형 시술 살 찌우는 약	의 료 시술	전문의 성형 시술 다이어트 약
계급적 불평등 → 출신성분 검열 신분상승의 기회 → 고위층과 결혼	직업	계급적 평등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으로부터 제기된 미적 기준
- 북한의 비과학적 의술 행위
- 계급화 된 북한 사회의 단면

4.1.2 북한 처벌 vs 남한 처벌

북한 처벌	구분	남한 처벌
공개처형 추방 연좌제 벌금형	주 처벌 방식	벌금형
북한 정권 절대 권력 손상 반역죄 불경죄 자퇴 자살 해외 영상 시청 수용소에서의 영양실조 남녀동반 자전거 탑승	특정 죄명	불법 지역 주차 속도위반 애견 배변 처리
피고 변호 불가 → 북한 정권에 대한 대항으로 간주	사법 제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북한의 비인권적 국가 주권 행사

4.1.3 북한의 평양 vs 남한의 서울

북한 평양	구분	남한 서울
김일성 우상화 장식 1973년 개통 출입문 인식센서 미탑재 한쪽 문 개방 김일성 업적 설명 방송 냉·난방 시스템 미설치 복장 검사 역사 내 쓰레기통 미배치 외국인과 북한 주민들의 요금 차이	지하철	(언급 없음) 1974년 개통 출입문 인식센서 탑재 양쪽 문 개방 정보성 안내방송 냉·난방 시스템 설치 (언급 없음) 역사 내 쓰레기통 배치 일정한 요금
105층 류경호텔 → 30여 년 동안 건축 중 → '유령호텔'로 불림 → 세계 흉물로 뽑힘	고층 건물	63빌딩 완공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주택 공시가 확정 후 시세 변동 없음 장마당권 선호	아파트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부동산 시세 변동 역세권 선호
타 지역 주민들 접근 어려움 배당되는 구매권 소지해야 구매 가능 상품별 전시	백화점	지역 관계없이 접근 용이함 자유로운 구매 브랜드 별 전시

-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 부각

4.2 <모란봉> 담화에서의 대립적 주장 : 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4.2.1 북한 교통 vs 남한 교통

북한 교통	구분	남한 교통
전력난으로 인해 경사 운행 불가 명확하지 않은 출발 시각 모자라는 좌석 잦은 고장(브레이크 등)	기차	(언급 없음)
단속의 대상 소수의 여성 운전자 인기직업 운전사	자동차	사적 소유 가능 다수의 여성 운전자 자유의 상징
평지 주차장	주차장	고층 주차장
한적한 도로 ← 사적 소유 불가	교통 체증	출·퇴근 교통체증 명절 교통대란

-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 부각

4.2.2 북한의 밤 vs 남한의 밤

북한의 밤	구분	남한의 밤
전기 사용 통제 칠흑같이 어두운 실내·외 별자리로 날씨 예측	자연 및 현상	밝은 가로등 불빛 반짝이는 네온사인 화려한 야경 불야성 보이지 않는 별빛
어두움 특정 대도시들만 전력 공급 정부기관 24시간 전력 공급	위성 사진	밝음 전 지역 전력 공급
손전등 기름등잔 태양열 충전기	생활 도구	(언급 없음)
특정 계층 노리지 않음 생활품(가마솥, 지붕, 빨래 등) 절도 신고 불가 군인 권력 이용한 범죄 급증 이웃 간 절도 범죄 만연 야간 장사 불가 생계유지형 절도	범죄 (절도)	부유층 상대 절도 귀금속 절도 경찰 신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24시간 편의점 노력만 하면 기본생활 가능
국경 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 보안원 사칭 후 압수 마약 밀수	범죄 (밀수)	(언급 없음)

-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
- 사유화 된 북한의 에너지원
- 생활고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범죄 양상

4.2.3 북한의 이전 직종 vs 남한의 새로운 직종

북한의 이전 직종	구분	남한의 새로운 직종
곡식 재배 잡초제거 밀수	업종	베이커리 횟집 고깃집 휴대폰 대리점 찜질방 내 음식점
적은 수입 불법으로 인한 처벌	애로 사항	북한 어투로 인한 편견 기본 생활비 부족 → 노선을 따라 도보로 출·퇴근

– 직업생활을 통한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정착 과정 속 고충

<이만갑>과 <모란봉>의 대립적 담화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만갑>에서는 북한 사회의 현상 및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남한 경제 혹은 문화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모란봉>에서는 북한의 생활에서 경험한 고충과 비판을 가하며, 탈북 후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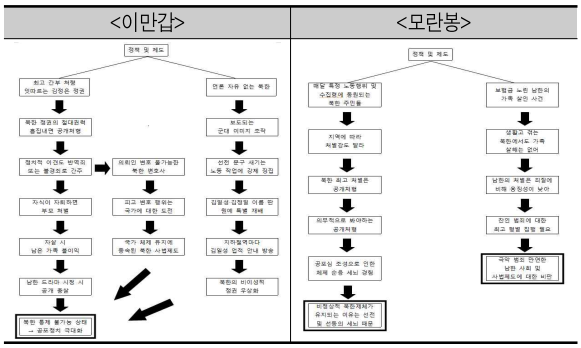
탈북자들이 중요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점은 <이만갑>에서는 남·북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담화로, <모란봉 >에서는 남·북의 미시적 환경에 대한 담화로서 담화의 크기와 범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담화의 차이로 인해 <이만갑>에서는 북한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한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언급하면서 남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양식으로 전개하는 반면, <모란봉>에서는 남·북에 모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면서 두 진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5. 담론분석

5.1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담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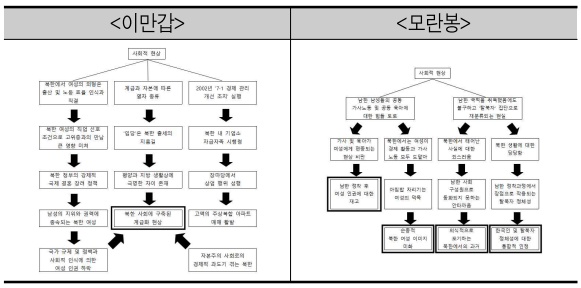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담론을 비교한 결과, <이만갑>의 경우 북한의 공포정치가 극대화되는 경향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면서 현재 북한 정권 및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으로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북한 공포정치 극대화 담론'으로 수렴된다. 한편 <모란봉>에서는 강력한 처벌제도로 인해 야기된 '비정상적 체제 유지을 위한 선전 및 세뇌 담론'이 생성되었고, 이에 상반되게 남한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담론도 함께 생성되었다. 북한의 비이성적인 처벌제도를 비판하면서도 남한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악범죄가 만연한 남한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담론'을 생성했다.

표 5. 두 프로그램 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담론 비교[14]



5.2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담론 비교

표 6. 두 프로그램 간 사회 현상에 대한 담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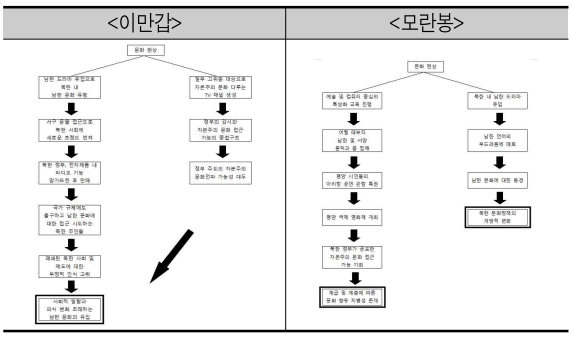
<이만갑>의 '사회 현상' 담론은 '북한 여성 인권 문제 담론'과 '북한의 자본주의 과도기 담론'이 생성되어 계급에 따른 생활의 질적 차이에 대한 현상을 강조하는 '북한의 계급화 담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한편, <모란봉>의 경우에는 탈북 후 남한에서 느낀 향상된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향상된 여성 인권 담론'을 생성하고 동시에 '순종적 북한 여성 미화 담론'의 대립되는 담론 역시 모순적으로 생성하고 있다. 또한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편견관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경력 불

14) 두 프로그램의 담론구조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했으나 본 학회지의 구조상 명료하게 제시하기 힘듦. 따라서 담론의 구조적 흐름과 변화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정'으로 인한 절망 담론'과 '탈북자의 정체성 혼란 담론'을 생성하면서 남한에서의 정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5.3 문화 현상에 대한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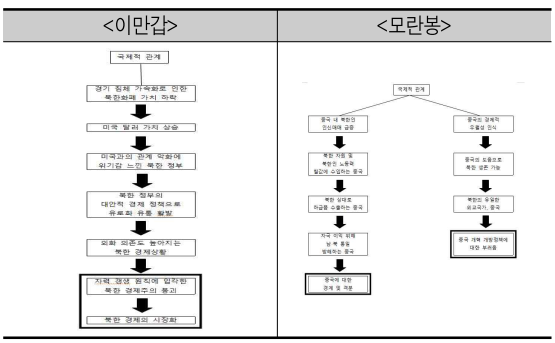
표 7. 두 프로그램 간 문화 현상에 대한 담론 비교



<이만갑>에서는 남한 문화 유입으로 인한 북한 내 유행에 대한 담론을 생성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의 기제가 된다는 관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사회 일탈과 의식 변화 야기하는 남한 문화 담론이 생성되고 있다. 한편 <모란봉>에서는 '북한 내 계급 에 의한 문화 차이 담론'과 '북한의 문화정책 개방 담론'이 함께 생성되며, 북한의 문화를 바라보는 탈북자들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5.4 국제 관계에 대한 담론

표 8. 두 프로그램 간 국제 관계에 대한 담론 비교



두 프로그램의 '국제적 관계'담론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생성되고 있다. <이만갑>의 경우,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외화 의존도 상승 사태에 주목하면서 국제 관계 관련 담론을 생성했다. '자력 갱생 원칙의 북한 경제주의 붕괴 담론'과 '북한 경제의 시장화 담론' 등이 생성되고 있다. 한편 <모란봉>에서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경제적 속국으로 대하는 중국과 관련되어 '중국에 대한 경계 및 격분 담론'을 생성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러움을 담고 있는 '중국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부러움 담론'을 생성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담론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만갑>은 '문화적 동화 담론'으로 귀결되며, 남한 사회로의 정착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다. 동시에 북한 생활에 대해서는 관조적 시각으로 언급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들을 생성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일부 긍정적 담론도 생성하지만, 이들 역시 남한의 자본주의체제 도입 또는 남한의 문화 유입으로 인한 변화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남한에 대한 긍정 담론들을 생성하고 있다.

반면 <모란봉>에서는 문화적 주변화의 시각으로 담론이 생성되어, 북한의 생활고를 가십화하거나 남한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이질감과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행태를 보이며, 남·북 동시 비판이라는 모순적 담론들을 생성한다.

요컨대, <이만갑>에서는 '자본주의 숭상 이데올로기', '북한 결핍 이데올로기', '남한 우월 이데올로기', '희망적 통일 이데올로기', '통합 이데올로기', '민족적 연대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남·북의 통합을 추구하는 심층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비해 <모란봉>에서는 남·북에 대한 동시적 비판의 시각을 생성하며 '자본주의 회의 이데올로기', '무정부 이데올로기', '남한 부조리 이데올로기', '남한 절망 이데올로기, '비관적 통일 이데올로기', '비연대 이데올로기' 등이 내재되어 있다.

VI.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영상화면 분석 방법을 통해 두 프로그램의 포

	<이만갑>	분석단계	<모란봉>
표출 및 표층 의미	– 개방형 세트 구조에 기인한 단순 터치식 발화 유도	**표맷구성 분석**	– 폐쇄적 세트 구조에 기인한 심층 발화 유도
	– 경성화	**주제 분석**	– 연성화
	– 북한 위주 담화 – 남한의 우월성 부각	**담화유형 분석**	– 남한 위주 담화 – 남한에 비판적 인식 고취
	– 거시적 시각	**대립적 담화에 대한 계열 분석**	– 미시적 시각
	– 수렴적 담론 구조 – 문화적 동화	**담론분석**	– 대립적 담론 구조 – 문화적 주변화
	⬇		⬇
심층 의미	– 탈북자 집단의 비전문성 – 대안 제시 불가	**표맷구성 분석**	– 불안한 심리에 기인한 제한적 담화 구도
	– 명백한 언어적 의미 표출 – 북한 정권 및 정책 풍자·비하 – 남·북 생활·문화적 격차 해소 – 남한 문화에 대한 긍정성 부각 – 범국가적 통일 시각 제시	**주제 분석**	– 감정의 전이 및 호소 – 북한 정권 및 정책 비난 – 북한 생활에 대한 가십화 – 남한 문화에 대한 충격 및 비판 – 사적인 통일 시각 제시
	– 북한에 대한 관조적 입장 – 남한에 대한 예찬	**담화유형 분석**	– 남한에 대한 실망 및 비난
	– 북한 체제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북한 정권 비판	**대립적 담화에 대한 계열 분석**	– 북한 생활고 부각 – 남한 생활 정착에 대한 불만족
	– 자본주의 승상 이데올로기 – 북한 결핍 이데올로기 – 남한 우월 이데올로기 – 화합 이데올로기 – 희망적 통일 이데올로기 – 민족적 연대 이데올로기	**담론분석**	– 자본주의 회의 이데올로기 – 무정부 이데올로기(아나키즘) – 남한 부조리 이데올로기 – 남한 절망 이데올로기 – 비관적 통일 이데올로기 – 비연대 이데올로기
	⬇		⬇
	탈북자 및 북한 담론의 일방향 논리적 비약		**탈북자 및 북한 담론의 단순한 흥밋거리로의 환치**
	⬇		⬇
	– 탈북자 정체성 혼란과 북한 담론에 대한 혼재성 – 통일 담론에 대한 탈북자들의 시각차 –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대한 두려움 개선 – 남한 사회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재고의 필요성 대두		

그림 2. <이만갑>과 <모란봉>의 다층 및 심층의미

맷 특성을 아우르는 가장 큰 함의는 공간 구조의 배치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이만갑>은 탈북자들이 개방적 세트에 진열하듯 배치되어 가벼운 담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탈북자 집단의 비전문성에 기인해 각 주제를 깊이 다루지 못할 것을 전제하며 '대안 제시자'가 아닌 '단순 전달자'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모란봉>은 폐쇄된 공간에서 토론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심층적 대화를 지향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등장인물들의 전문성 한계로 사변적 담화로 귀결되었다.

둘째, 주제 분석의 시행 결과, <이만갑>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주제들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 및 정책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하하고, 남한 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부각하며, 범국가적인 통일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모란봉 >은 가벼운 주제들과 선정적 주제들을 바탕으로 감성에 호소하고, 북한 생활을 희화화하며, 남한 문화에 대한 비판 및 절망, 그리고 통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담화유형 분석에서는 8가지 담화유형 이 추출되었는데, <이만갑>은 '북한에 대한 긍정형'과 '남한에 대한 판타지형'을 중심으로 남·북 비교를 통해 남한의 우월성을 부각하고 이를 예찬하는 반면, <모란봉>은 '남한에 대한 비판형'과 '남한에 대한 불만형'을 중심으로 남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고취하고 남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탈북자들의 비관적 시각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넷째, 대립적 담화에 대한 계열 분석 결과, <이만갑>은 북한 사회 및 정책에 대한 거시적 시각으로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모란봉>에서는 남·북의 생활적 측면에 대한 미시적 시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부각하거나 남한 생활 정착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분석 결과 역시 상당히 상이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이만갑>은 '문화 동화 담론'으로 귀결되어 남한의 우월성 부각에 집중하는 수렴형 담론이 주를 이뤘고, <모란봉>은 '주변화 문화 담론'으로 귀결되며 남·북에 대한 동시 비판과 더불어 일부 긍정의 양립적 시각을 제기하며 각 주제마다 대립적 담론들을 생성하고 있다.

담론 분석을 통해 <이만갑>에서는 '자본주의 숭상 이데올로기', '북한 결핍 이데올로기', '남한 우월 이데올로기', '희망적 통일 이데올로기', '통합 이데올로기', '민족적 연대 이데올로기' 등이 내재되어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의 화합을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반해 <모란봉>은 '자본주의 회의 이데올로기', '무정부 이데올로기', '남한 부조리 이데올로기', '남한에 대한 절망 이데올로기', '비관적 통일 이데올로기', '비연대 이데올로기' 등이 내재되어 남·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남한에 대한 실망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이데올로기들의 내재와 의미 작용은 두 프로그램의 제한적 속성을 잘 드러내었다. <이만갑>은 남한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 시각들을 부여하여 남한에 대한 긍정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한계가 있고, <모란봉>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제 및 담화를 통해 탈북자 및 북한 담론이 단순한 흥밋거리로 치부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부정적 여파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갑>과 <모란봉>은 탈북자들의 언술 행위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을 목적으로제작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유의미성이 드러났다. 특히 두 프로그램에서 탈북자들의 담화가 상반되게 나타나면서 정체성 혼란에 기인해 탈북자 집단 내에서도 북한 담론과 통일 담론이 혼재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및 통일 담론의 대립적 차이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대한 정도의 차이와 남한 사회에 스며드는 어려움의 차이로 발현된다. 따라서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대한 어려움과 남한 사회의 체제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개선이 시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남한사회에서 남한 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김미선, 김유례, “역사적 소통 공간으로써 미디어 재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pp.157-169, 2015.

[2] 태지호, 황인성, “텔레비전 토크쇼<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 의 탈북 여성들의 사적 기억 재구성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 한국언론정보학보, pp.104-124, 2012.

[3] 박주연, “통일 및 북한관련 지상파 텔레비전 정규 프로그램 연구: KBS 의<남북의 창> 과 MBC 의 <통일전망대>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0권, 제1호, pp.43-68, 2012.

[4] 박병도,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법학논총,” 제19권, 제1호, pp.35-59, 2012.

[5]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6] 조동운, 최양진, “제 2 분과<재난안전특별위원회 2: 재난안전 역량 강화>: 발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pp.119-136, 2015.

[7] 조현상, “탈북 (脫北) 디아스포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배제와 포용에 관하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pp.285-306, 2015.

[8] 김성경,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잘냉전과 대량탈북시대에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위치의 한계와 가능성,” 북한학연구, 제10권, 제1호, pp.37-69, 2014.

[9]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

[10]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 시민교육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회보, 제13권, 제2호, pp.51-70, 2012.

[11] 김상철, “탈북자 (새터민) 문제 해결방안,” 복지행정연구, 제24호(단일호), pp.127-162, 2008.

[12]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제3권, 제1호, pp.129-173, 2011.

[13] 오영숙, “탈북의 영화적 표상과 공간 상상,” 영화연구, 제51권, pp.185-212, 2012.

[14] 윤인진, “탈북자는 2등 국민인가,” 당대비평, 제16권, pp.222-255, 2001.

[15]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사회학, 제44권, 제1호, pp.207-241, 2010.

[16] 모춘흥, 김수철, “영화에서 재현된 탈북자들의 인정투쟁의 다면성과 조건:<무산일기>와 <댄스 타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0권, 제1호, pp.117-150, 2016.

[17] 오원환, “탈북자 정체성의 정치학 : 종편에서의 ‘탈북미녀’의 등장과 ‘탈북자’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0권, 제3호, pp.5-41, 2016.

[18] 전규찬, “TV 오락을 둘러싼 담화정치학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5권, pp.47-71, 1994.

[19] 박경숙, “탈북이주자 생애사에 투영된 집단적 상흔과 거시 권력 구조: 지속된 한인 디아스포라, 가부장제, 위계적 시민권,” 경제와 사회, 제95호, pp.288-332, 2012.

[20] 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002.

[21] 조영주, “북한 여성 연구의 자료로서 ‘증언’의 활용가능성,” 여성학논집, 제21권, 제1호, pp.37-78, 2004.

[22]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23] 이창덕, “국어교육과 대화분석 : 대화분석 이론과 연구 방법의 국어 교육 적용 모색,”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4집, pp.39-64, 1998.

[24] C. Seale, G. Gobo, J. F. Gubrium, and D. Silverman,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Sage Publications, 2008.

[25] 박동섭, “바흐친의 대화성 개념을 통한 교실 담화분석의 방향 모색,” 교육인류학연구, 제11권, 제1호, pp.37-72. 2008.

[26] D. S. Park and Y. Moro, “Expanding socio-psychological study through Bahktinian dialogicality,”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46, No.2, p.146, 2007.

[27]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28] K. Henderson and J. Mazzeo, *Meanings of Medium*, 백선기 역, *TV 속의 사회 사회 속의 TV*,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9] 백선기, 황우섭, "다문화성 TV 방송 프로그램이 패러독스 : KBS-TV의 <미녀들의 수다>에 내재된 '다문화성'과 '섹슈얼리티'의 혼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5권, pp.255-295, 2009.
[30] 김용은, 나동규, 김주희, 남미경, 김범식, "스포츠영화< 코리아> 의 재현된 이미지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6권, 제1호, pp.167-184, 2013.
[31]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32]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33] 백선기,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34] 백선기, 백은정,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경향과 이데올로기 : 백선기의 기호네트워크구조 분석(SNA)와 담론구조 분석(DSA) 적용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29권, pp.227-269, 2011.
[35] 이민경, *종합편성채널 통일·북한관련 프로그램의 생산과 수용에 관한 연구 :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6] 손혜진, *무대미술 공간개념에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7]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서울 국제, 2002.
[38]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 컬러리스트 완벽대비를 위한 최고의 이론서*, 안그라픽스, 2005.

저 자 소 개

강 민 경(Min-Kyung Kang) 정회원

- 2012년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언론홍보학과(학사)
- 2016년 :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매체전공(석사)

<관심분야> : 기호학, 대중문화

백 선 기(Seon-Gi Baek) 정회원

- 1979년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81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1985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수료)
- 1989년 : Univ. of Minnesota, Communication Studies 전공(박사)
- 1990년 ~ 1997년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997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현 PACA 회장, WCA회장, IAMCR 국제평의회의원, 한국방송학회 회장 및 한국기호학회 부회장 등 역임

<관심분야> : 기호학, 대중문화, 문화연구, 담론연구, 문화콘텐츠연구

남 시 호(Siho Nam) 정회원

- 1994년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2000년 : Georgia State Univ. Communication(석사)
- 2005년 : Pennsylvania State Univ. Mass Communication(박사)
- 2005년 ~ 현재 : University of North Florida. Dept of Communication(교수)

<관심분야> : 인간커뮤니케이션, 대인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연구